

해양수산부 8월8일 출범 9주년 기념식 거행

STX 범신희 항해사 등 선원 6명에게 포상

최수종·채시라씨 바다홍보대사에 위촉

해양수산부는 8월8일 오전 11시 종로구 계동 해양부 대강당에서 전직 장·차관, 국회의원 및 관련 업·단체대표 등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출범 9주년 기념식을 가졌다.

김병찬 아나운서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기념식은 해양소년단원의 바다현장 낭독과 송죽현 어린이 합창단의 축하공연으로 시작됐다.

오거돈 해양부 장관은 기념사에서 “그 동안 신생부처로서 시행착오와 어려움도 겪었지만 끊임 없는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해양부가 바다를 책임지는 주무부처로서 확고히 자리잡아 가고 있다”며, “앞으로도 해양부는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사랑받는 부처로 거듭나 21세기 동북아시아의 주인공으로 우뚝 서자”고 강조했다.

오거돈 해양부 장관은 기념사를 통해 “해양수산부가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사랑받는 부처로 거듭나 21세기 동북아시아의 주인공으로 우뚝 서자”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선주협회 장두찬 회장은 축하메시지를 통해 “13개 부처에 분산되어 있는 해양관련 행정업무를 통합하여 효율적인 해양정책을 추진하고, 더 나아가 21세기 해양강국 건설을 위해 출범한 해양수산부는 9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많은 일을 했다”고 강조하고, “이제 우리나라는 해운, 해양, 수산, 해상안전 등

모든 분야에서 크게 성장하여 선진해양국가로 성큼 다가섰으며, 이러한 결과는 해양강국을 향한 해양수산부의 의지와 지속적인 노력의 결과로서 해운업계를 대표하여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해양수산부 발족 9주년을 축하했다.

이어 ‘올해의 선원’으로 선정된 STX의 범신희 항해사 등 6명에 대한 포상과 국제해양법재판소의 박춘호 재판관과 국제해사기구 법률위원회 의장에 피선된 고려대 채이식 교수가 활발한 국제기구 활동으로 공로패를 받았다.

특히 이날 기념식에서는 인기 드라마 ‘해신’의 강일수 PD 등 제작진 3명에 대한 해양홍보 공로패 수여와 역시 해신의 주인공인 탤런트 최수종, 채시라씨에게 바다홍보대사 위촉패가 수여돼 눈길을 끌었다.

이날 기념식은 지난 1996년 해양부 출범이후 9년간의 발자취를 담은 ‘해양수산인의 다짐’이라는 주제의 영상물 상영과 성악가 임용균씨의 축하공연으로 막을 내렸다.

